



사랑의 행진, 땅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꾼 ①②

장소: 우즈베키스탄 | 일사: 2007년 7월 31~8월 7일

❶ 아프리카나산 인질사태로 한창 긴장감이 더해갈 즈음 주님의 교회 단기선교 팀 19명은 7월31일 오후5시30분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하여 단기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나 자신의 확고한 신념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팀의 대열에 합류 하였습니다. 첫째 날 열방 치료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병원시설모습은 서울의 상위권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의료기술 수준도 최고 수준이며 모든 치료의 대부분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국땅 멀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장애인 사생대회가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보건부장관이 참석할 만큼 비중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오전10시에 시작하여 2시간 동안 작품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림 제목은 이미 희망을 받아 정해져있었습니다. 우리팀은 다른 청소년 봉사 팀과 함께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연필도 깎아 주고 물도 떠다주며 붓에 물감도 묻혀주고 목이마르면 물도 먹여 주고 또 그들과 나란히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언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며 그들과 곧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음으로 축복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질 무렵 어느 동상 앞에서 오늘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동상주위를 돌며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고성을 돌고 크게 외쳐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주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즈베키스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전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 하고나니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단기선교에 동참 하였습니다. 사실 기도로 준비하지도 못했고 아프리카나산으로 두려운 가운데 매디턴 발걸음이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많이 일깨워주셨습니다. 싸마라칸도로 가는 기차 안에서 유리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 삶을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추수 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태복음9장37절말씀) 많은 선교사님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모든 종교간의 갈등도 하루속히 해결되어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합니다. 넓은 대지를 바라보면서 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트르를 바라보면서 몽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영어사역팀원들(EM)

9개월 133명의 성도들이 지난 여름 단기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나산 피랍사건의 아픔과 이로인해 우려섞인 걱정이 있었지만, 차분하고 진실하게 맡겨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본특집은 선교후기를 모은 것입니다. 지면상 원고중 일부가 편집 및 생략 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글을 써주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편집부

❷ 7월말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비행기에 또 몸을 실어야 했던 나는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불과 10여일 전 아프칸에서 한국인이 피랍되어 생사가 모호한 가운데 우리들의 계획을 결행하였기 때문이다. 준비 기간 동안 이슬람 나라를 향한 단기선교는 처음이었기니와 때마침 아프칸 사태가 터져 술직히 말하자면 나 자신도 담대할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에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다. 가슴이 뭉클하여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 솟구치며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다. 출국 전날까지 매일 밤을 그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서 31일 집을 나서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그곳의 열락제단에서 장애인들과의 첫 대면에서는 그들의 표정이 어찌 그리 순박하고 아름다운지 미처 내가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다가오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린 저 아이들이 저런 몸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또 한 번 가슴이 시려온다. 또한 저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계획 하심과 인도하여 주신에 감사를 드린다.

우연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안부전화를 하던 중에 11년 동안 매년 진행되어진 장애아 사생대회가 후원처가 없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허락해 주신 것이며 팀원들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프리카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11살의 어린이부터 76세의 연세가 많으신 분까지 무려 19명의 팀원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옮겨 놓으신 것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100여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

떠했는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생각난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나라가 100년 후가 될지 아니면 2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저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계획 하셨고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황승근 안수집사(4-10)

국적과 나이를 넘어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장소: 몽골 | 일사: 2007년 8월 1일~8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비전을 갖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어사역팀(English Ministry, 이하 EM은 몽골을 향하여 첫 여름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2년 전에 한국으로 유학하러 온 "체기"라는 몽골인 자매가 주님의교회 영어에배 멤버가 되어 1년동안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당시 체기의 오빠는 몽골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지방사역을 하고 있다. 몽골로 돌아간 체기를 통해 주님의교회 EM은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녀의 오빠, 언니와 관계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함께 몽골사역 할 이야기도 나누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현지로 먼저 가서 기도하면서 땅을 밟고 상황 파악도 하고 몽골의 사역자들, 크리스찬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과 어울리면서, 주님의교회 EM이 어떻게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지 파악을 하기로 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불과차로 11시간정도 달려 도착한 조그마한 마을, 바쉬리트...그곳에서의 성도들과 아이들과의 만남은 진정 축복된 시간이었다. 현지인 크리스찬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나누고, 정말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 없네!'라는 찬양을 울동과 함께 부

를 때, 국적과 나이를 넘어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몽골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크게 몽골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 느꼈다. 몽골은 인구가 희박하고 시골 마을로 이동하기가 힘들어 그 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런 마을들이 국내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주님의교회 EMO 함께 동참할 예정이다. 비교적 도시교회들은 잘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한다. 몽골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의 전통 종교는 라마불교라고 생각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몽골인을 자기의 문화를 버린 사람들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몽골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나 그 나라를 변화시키도록 함께 기도 했다.

권순우 (EM)

주님과 동역하며 많은 도전을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

장소: 중국 남양 | 일사: 7월 15일~20일

주님의교회는 2007년 하계 선교로 "사랑의 행진, 땅끝까지"라는 주제아래 총 10개 팀을 파송했다. 우리 팀의 선교사역지는 중국 중원의 하남성 서남부에 위치한 청운도 예방선교공동체다. 예방공동체는 선교의 중심이 유럽과 미국의 시대를 넘어 21세기는 아시아시대로서 그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땅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약 5년 전에 한국의 유요셉선교사가 아려 호숫가에 2만평의 황무지를 개간하며 시작되었다. 회교권과 힌두권을 비롯한 세계선교를 목표로하는 공동체의 선교방식은 자비랑선교(自費糧宣敎)와 공동체선교이다. 현재 한국인 7명과 중국가정교회 지도자 자녀 중심의 30여명이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노동력으로 한국식당 운영과 외자사업을 통하여 스스로 자비랑하며 삶으로 디아스포라 할 수 있는 준비중이다. 이와 뜻을 같이하는 양회 장 간디데안학교 교장이 이사장으로 맡고 있다.

총12명으로 구성된 우리팀은 4박5일간의 짧은 선교기간이므로 속달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주님의교회 선교본부에서 마련한 3차의 선교교육에 참가하는 한편, 5차에 걸친 특별기도모임, 그리고 중화한성교회를 방문하여 '중국선교 바로알기' 교육 등 총 8차에 걸친 준비모임을 가졌다. 우리팀의 성격은 1)예방선교공동체의 헌신된 지체들과 공동체 생활, 2)선교,영성,지도자교육 함께 받기, 3)선교에 대한 비전과 각오를 새롭게 하기 등을 통한 4) 영성훈련이었다. 땅끝 선교를 목표로 하는 그들은 1)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자부심 심기, 2)공동체 생활에 절대 필요한 찬양율동과 말씀을 통한 기도묵상, 3)대인관계 기술훈련, 4)세백제민마다 연륜이 높은 팀원들의 간증을 통하여 그들이 다양한 삶을 대리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나온 선교지로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낙후된 농촌지역이다. 다 음에도 이곳에 선교회가가 주어진다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술, 의료, 어린이 봉사, 토목노역, 예제능 활동 등을 통한 대인 봉사활동을 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곳은 선교지로서 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환경 및 경관이 주님의교회 초종중 및 청장년의 영성수련 장소로서, 중국과의 문화교류 및 중원문화의 문화유산 탐방 등에 활용하기에 도 좋은 환경이다. 또한 자비랑을 가지고 몸으로 헌신하며 디아스포라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릴 적 손오공 만화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다. 만화에는 화염산,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나온다. 우리는 6가지 18명이 모여서 손오공의 배경이 되는, '서역'이라고 불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정탐여행을 떠났다. 그 곳은 행적적으로는 중국 신장성에 속하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을 믿는 위구르종족이 살고 있는 곳이다. 사후무치에 도착하여 잠시 눈을 붙인 후 카스케트 비행기를 탔다.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이드람 모스크와 항비묘 (귀족계급의 가족묘실 중 하나)에 가서 기도하고 구 도시와 위구르 전통시장을 돌아보았다. 점심식사 후 버스를 타고 5시간 동안 파미르고원에 있는 타쉬코르간으로 이동했다.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계곡(석회수)과 흰 산을 이룬 모래호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를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해반3000m에서 자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압이 낮아 커피 봉지가 부풀어지고, 코피가 나고, 구토, 고막에 상처를 입은 분도 있었다. 한때 실크로드의 영화를 누렸던 중국의 서쪽 국경도시의 터 타쉬코르간 (THE ANCIENT STONE CITY)! 이슬람의 동진과 복음의 서진이 맞닥뜨려 있는 견고한 진 (STRONGHOLD)이 형성되어 있는 현장에서 '주님!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행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같은 교회서구들의 연합과 동거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변준식 집사(4-10)

사람을 도구로 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장소: 캄보디아 | 일사: 8월 10일~15일



놓은 나라, 얼마전 비행기 추락사건이 있었던 나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의 나라, 못 사는 나라, 물공급이 어려워 우리교회에서 우물을 파준 나라,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곳, 무척 더운나라 등등 조카 퍼즐을 맞추듯 이런 저런 캄보디아에 대한 생각들이 약간은 겹겹한 발거리를 지나는 동안 머릿속을 스쳐갔다.

준비해 온 것을 잘 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염려만 기대만의 마음으로 첫 밤을 지냈다. 주일 아침 교회에 도착한 순간 나의 머릿속 준비는 모두 멈춰 버렸다. 예배당과 가득 채워 앉은 젊은 캄보디아 청년들, 성경을 읽고 뜨겁게 기도하는, 특히 아프칸에 피랍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낯선 캄보디아풍의 찬양을 기쁘게 부르고 또 우리들을 위해 한국어로 특송을 불러준 프놈펜 교우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질감과 함께 친근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눈물 은 선교여행 내내 멈추지 않았다. 멀리 한국에서 와서 준공식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인지 결아서, 자진기를 타고, 르뽀"를 타고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왔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목사님께선 복음전파의 기회를 갖고, 의료봉사, 어린이 사역, 즉석사진 찍어 주기, 풍선아트 등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해간 것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방문지였던 트람팍초등학교에서 당황스러웠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금씩 여유를 갖고 당당교회, 쥘미리교회, 다폴초등학교, 캄뽕프라예 군청과 병원에서의 사역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여러 사역도 보람되었지만 현지 교회 리더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축복기도해 주었던 시간은 참으로 소중했다. 우리는 짧은 시간 그곳을 다니다가지만 현지지터들은 90%가 불교인 지역을 복음화하고 기도로 이끌어 가야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다. 또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외롭지 않고 주님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이번 선교여행에서 사람을 도구로 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지금 보게 되었다. 이성진,김창숙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고 현지인들을 교회 리더로 훈련시키고 섬겨서 더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번 선교여행의 가치를 헤아릴수 있을까? 난 캄보디아에 많은 빛을 지고 왔다.

"그래, 이제 넌 어떻게 살거나?"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주님! 전 아찔도를 아이와 감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조카품이 아니라 빛진 것 같아이는 사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성에 더욱 귀 기울일께요. 저에게 무한한 사랑 주시는 거 다 알아요. 이번 선교여행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랑, 축복을 세어보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계신 것도 눈으로 보고 왔어요. 지도 주님 님아가 더욱 노력할께요.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 사랑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르뽀 위에서 보았던 쏟아질 것 같은 빛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캄보디아인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길 기도한다.

이현신 사모

청년부 VISION TRIP

정신적인 가치를 선물 받고 돌아 온 비전트립

장소: 캄보디아 | 일사: 8월 5일~15일

다 좋은 것들을 누리고, 걸치고, 가지고, 그런 데도 끊임없이 더 나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 캄보디아팀은 그들 캄보디아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갔다. 하지만 물질을 다스리는 힘은 정신이지 않은가? 우리는 비록 그들에게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주고 왔지만 그들을 귀하게 귀한 정신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황송하게도 그들에게 준 이상의 것들을 받고 온 셈이다. 이런 은혜들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프놈펜에서 이성진/김창숙 선교사님을 뵈고 파이린의 유일한 선교사님이신 윤구형 선교사님과 김경희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분들의 캄보디아 선교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축복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그분들의 모든 기도제목이 모두 캄보디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니 꼭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파이린에서 단기선교사로 헌신하면 어떻가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품어보았다.

이런 귀한 만남들을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의 성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따름이다. 나에게 이번 캄보디아 비전트립은 비전트립도 그 의미 그대로의 여행이었다. 내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었고 이와 더불어 나의 연한들, 그리고 다들여지지 않은 성품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비전트립은 끝났지만 아직 주님이 그 비전트립을 통해 나에게 주신 숙제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부유한 환경 속에 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무언가를 타하는 내 모습, 정말 나는 이 학생들보

김금진(청년부)

기사제공: 청년부

르뽀: 오트베터에 걸린 의상들은 일용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문화를 나누며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장소: 동유럽 일사: 8월 6일~16일

청년부 단기선교팀은 지난 8월 6일부터 12일동안 동유럽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헝가리-체코-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선교팀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현지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선교활동들을 펼쳤다. 헝가리에서는 노숙자들에게 빵과 스프를 나눠주는 밥과 목사님으로 알려진 신성학 선교사와 함께 세무역, 동부역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모스크바 광장에서 타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한국인들로서 헝가리인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청년들은 집시마을을 방문해 집시 아이들과 춤추며 찬양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헝가리의 계절별 교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뉘른른 궁전에서는 다양한 유럽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체코에서도 노방전도를 하며 선교활동을 펼친 청년들은 17일 한국에 귀국했다.

기사제공: 청년부